

1107(월) 사도행전 5-8장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

성령 충만한 예수공동체는 날로 왕성했으며
복음 선포와 전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(5:42,6:6).
성전권력들은 곧 그들을 주목했습니다(5:17).

유대인들에게 <성전>은 매우 각별했습니다.
성전은 하나님의 임재, 임마누엘을 상징했습니다.
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며,
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(출40:34-38).
(출25:8,레9:22-24,16:2,민9:15-23,왕상8:30)

그러나 하나님은 계속된 불순종에 성전을 떠나셨고,*
유대인의 역사 또한 깊은 암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.
그들은 <출애굽 구원>이 재현되길 갈망하며(신30장)
율법(말씀)을 준수하기로 엄중히 결단합니다.
*겔10:18, 11:8-13

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.
참 하나님, 참 인간이신 예수님으로(요1:10-11,1:18)
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.
예수님은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시며(마1:21, 새로운 출애굽),
<말씀>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.
성전보다 크신 분, 예수님이 오셨습니다(마12:6).
(마5:17, 요1:14, 고후5:17)

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는 사실,
예수님으로 맺게 된 새 언약을 부정했습니다(눅22:20).
하나님을 <성전>에 가두고 옛 언약을 고수하며(7:48, 대하6:18)
조상들의 죄를 반복했습니다(7:51-53, 막3:29, 요8:38-41).

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며
<성전>너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선포합니다.
그는 결국 순교자가 되었습니다(7:59, martyr, 증인).

나는 예수 그리스도, 복음의 증인입니까?
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까? 믿고 있습니까? 전하고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사도행전 5-8장